임실군청 사격팀, 전국사격대회 제패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서 10M 공기권총 개인전 · 단체전 우승

임실군청 사격팀이 파리올림픽 후 치러진 첫 전국사격대회를 제패했다.(사진 왼쪽부터 황성은, 윤선정, 김예지, 이시윤 선수)

임실군청 사격팀이 파리올림픽 후 치러진 첫 전국사격대회를 제패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임실군청 사격팀은 각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사격 강군'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김예지 선수를 포함해 황성은, 윤선정, 이시윤 등 4인으로 구성된 임실군청 사격팀은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안정된 팀워크와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회를 지배하며 다른 경쟁 팀을 압도했다.

공기권총 단체전 우승은 임실군의 오랜 훈련과 팀원 간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5M 권총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팀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를 이끌었고, 이러한 결과는 팀의 전체적인 기량과 전략이 돋보였음을 증명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단체전에서의 강점을 재입증했다.

곽민수 감독은 "올림픽 후 치러진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임실군과 심 민 군수님께서 대회 전부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선수들 사기를 북돋아 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훈련에 더욱 매진하여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김예지 선수는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10M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도 팀을 이끌며 우승을 달성해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성과를 통해 세계 무대뿐만 아니라 국내 무대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심민 군수는 "우리 임실군청 사격팀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단합된 힘과 탁월한 기량은 우리 군민 모두에게 큰 자랑이 되었다"며 "특히 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팀원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실군청 사격팀이 국내외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행복순창몰' 농특산물 할인행사

추석 맞아 9월 18일까지 한우 · 송이버섯 등 특별 할인가 제공

순창군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 '행복순창몰'에서 특별한 농특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정성과 순창의 청정한 자연이 빚어낸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6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순창의 자랑인 고소한 쌀부터 육질 좋은 한우, 향긋한 송이버섯, 신선한 쌈채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특산물을 특별 할인가로 제공한다.

또한, 행복순창몰에 새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을 위해 3,000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될 경우 행사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참여하길 바란다.

군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2023년 7월부터 '행복순창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소비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고, 동시에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행복순창몰'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행복순창몰'을 검색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군은 사이트 내 고객센터의 상담게시판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추석 맞이 특별 할인 행사는 우리 순창의 자랑스러운 농특산물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마련했다"면서, "올해 추석은, 행복순창몰에서 순창의 맛과 정성이 담긴 다양한 농특산물을 구매하셔서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공공형 계절근로' 소규모 영세농가 호응

남원시, 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여

남원시가 농촌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근로자들이 공동 숙식시설에 체류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방식보다 부담이 덜하고, 1일 단위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소규모 영세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와 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근로자들의 현지적 응과 효율적 근로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숙소 마련, 통역상담사 배치, 근로자 자체 관리반장 선출, 근로자와의 수시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올 4월에 입국한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은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연인원 2,500여명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들 또한 근로자들의 이용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인력수급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통동,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나서

남원시 도통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일 1가구 방문 진행에서 발견한 노후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을 지난 23일 개선했다.

이날 진행한 가정은 도통동 복지기동대에서 선정된 세 가구 중 한 가구로, 기동대 봉사자들이 함께 물품 정리 및 환경개선에 나섰으며, 복지기동대는 2024 전북형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위촉, 동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는 등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했다.

이번 수혜자는 "더울 때 현관문도 열지 못하고, 밥도 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좋아요"라고 전했으며, 소선자 동장은 "1앞으로도 도통동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보호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을지연습' 성공적으로 마무리

임실군이 지난 22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을지연습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2024년 임실군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로 56회를 맞은 을지연습은 북한의 미사일·무인항공기 위협, 쓰레기풍선 살포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태세 확립을 목표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했다.

군은 을지훈련에 앞서 14일 5시 30분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려 비상소집 명령 전달체계 및 비상 연락망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19일 을지연습 1일차 최초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 직제편성훈련과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전시창설 기구 설치 및 운영 훈련 등을 실시해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전시 임무를 숙지하며, 충무사태별 조치 사항을 토의했다.

20일에는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에서 민·관·군·경·소방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대응 훈련'으로 사고 발생부터 현장 조치까지 실제상황을 가장한 훈련으로 진행하여 행락객 부상자 구호, 거수자 체포, 시설파괴에 대한 응급 복구 등에 대한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3일차 21일에는 심 민 군수 주재로 적 특작부대에 의한 임실터미널 폭파에 따른 인명피해, 건물 소실, 수도관, 가스관 파손에 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했다.

또한 을지연습 4일차인 22일 오후 2시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공습 발령 시 지하대피소 대피 및 소방차 길터주기, 차량이 동통제 훈련과 시범대피훈련으로 임실읍행복누리원에서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 실시 후 심폐소생술 및 방독면 착용법,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심민 군수는 "이번 을지연습은 안보위협에 대응한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점검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금년도 연습 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실제상황별 대응 절차를 보완 개선해서 위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켜,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강력한 징수로 고질체납액 정리 나서

순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한 후 법원 공탁금을 압류, 추심할 방침이다.

법원 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 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보증공탁 3가지로 이뤄져있는데,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

순창군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재판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운암면서 이동 세탁 서비스 진행

운암면이 섬진강댐노인복지관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운암면 내 경로당 앞에서 이동 세탁 서비스를 진행했다.

섬진강댐노인복지관은 k-water 나눔복지재단의 기관으로 독거 및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세탁 사업, 사회참여 기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동 세탁 서비스는 전용 세탁 차량을 통해서 세탁물을 가져오면 세탁 및 건조까지 실시하고 편하게 수령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내 저소득층에게는 직접 연락 후 방문하여 서비스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김규현 운암면장은 "이동 세탁 서비스가 독거 및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